

가전업계, 북미 공조시장 공략 속도... '삼성·LG' 최전선 활약

AHR EXPO 2025

삼성전자 100평 규모 부스 운영
실외기 등 가정용 솔루션 집중

LG전자 칠러 기반 산업시장 공략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 등 소개

국내 가전업계 쌍벽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북미 냉난방공조설비(HVA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실외기로 유니터리(중앙 공조) 가정용 시장을 노리고 LG전자는 '칠러(Chiller)'를 통해 산업용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0~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글로벌 업체 1800여개 이상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 삼성전자, 가정용 유니터리 솔루션 제시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 R454B'를 선보인다. 이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하이브리드 가정용 히트펌프 EHS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하이렉스 실외기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공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산업용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다 난방과 급탕을 위한 솔루션이다. 공기열·전

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산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은 친환경을 고려했다.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했다.

◆ LG전자, 고효율 HVAC 제품 뽐내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칠러(Chiller)'를 앞세워 고효율 HVAC 시장을 공략한다. 최근 칠러 상품은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건물 등의 열 관리가 중요해지자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



LG전자 모델이 인버터 히트펌프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에 설치된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글로벌 톱티어 종합 공조 업체를 목표로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 솔루션을 제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소개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

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해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였다.

칠러뿐만 아니라 난방 라인업도 선보였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이다.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유니터리 방식의 주거용 난방 솔루션으로 현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한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에서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엔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운영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운영사 선정 "에너지 순환 사업모델 안정적 구축"

LG에너지솔루션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운영을 맡게 됐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km²에 5.56MW 풍

력 터빈 18기를 운영한다. 연 평균 23만 4913MWh의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림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 및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의 입찰 제도에 참여해 전력 거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입찰 제도를 도입해 급전자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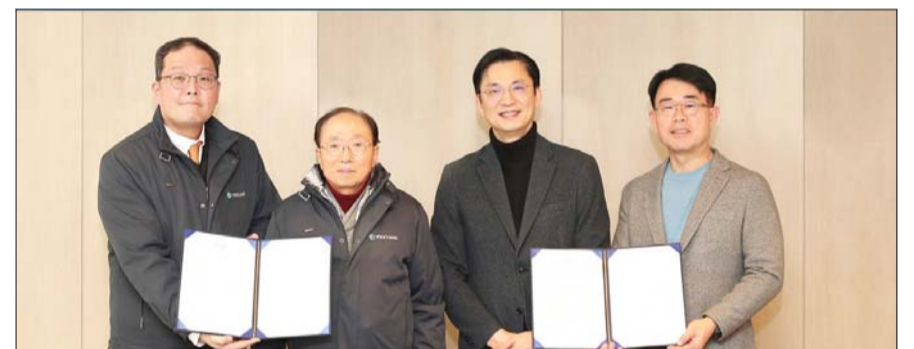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단독형 ESS를 구축해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뛰어난 재생에너지 운영 능력으로 낮은 발전량 예측 오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행 실적, 예측 정확도,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운영 능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운영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황원필 EaaS 사업 담당은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압도적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6일 유창이앤씨 천안 공장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유창이앤씨의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우제 유창이앤씨 대표, 유창 조용선 회장,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오치오 B2B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AI 스마트 모듈러 건축시장 공략

유창이앤씨 MOU... 상품개발 등 협력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모듈러 건축물 제작 전문 회사인 유창이앤씨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듈러 건축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유창이앤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듈러 건축 상품 개발과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창이앤씨는 2003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업무, 군사 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듈러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공간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시스템 에어컨·사이니지·냉장고·세탁기 등 AI가전, 약 4200종의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를 유창이앤씨의 다양한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등 AI가

전은 물론, 온도·동작 센서, 도어, 스마트 플러그, 조명,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해 통합 관리·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발표한 '홈 AI' 비전을 모듈러 건축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홈 AI' 비전은 거주하는 집을 넘어서 이동수단,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에서도 내 집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홈에서의 경험을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를 집에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미래형 친환경 주거 형태 '넷 제로 홈' 관련 협업을 확대해 모듈러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솔루션과 유창이앤씨의 기술력이 만나 고객이 더욱 다양한 모듈러 공간에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누릴 것"이라며 "AI 기반의 모듈러 공간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한화정밀기계, '한화세미텍' 새출발... 김동선 부사장 합류

(한화그룹)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도약



한화세미텍은 40년 가까이 표면실장 기술(SMT·Surface Mount Technology) 장비,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작기계 등 첨단기술을 선보인 제조 설루션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인수하고 영역을 확대했다. 최

성이다. 첨단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반도체 제조설루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화정밀기계는 미래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명을 한화세미텍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세미텍은 반도체와 기술을 더한 합

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인 후공정 장비 TC(Thermal Compression) 본더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한 김 부사장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과 의지를 새 이름에 담았다"며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이뤄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